1. 다음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기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밭에서 조, 피 등을 재배하였다.
② 천군이 제천 의례를 주관하였다.
③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 매장하였다.
④ 목책과 환호를 설치하고 구릉 위에 취락을 이루었다.
⑤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을 사용하였다.

정답: ①

*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

왼쪽: 빗살무늬 토기 (서울 암사동)
오른쪽: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조, 피, 수수 등).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쓴 주요 농기구로는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농경은 집 근처의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의 퇴적지를 소규모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③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독무덤(영산강 나주 지역) 등이 만들어졌다.

④ 청동기 시대의 집터는 대체로 앞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북서풍을 막아주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 곳에 우물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 유적지인 울산 검단리 집터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여 마을 주위에 환호를 설치하였다.

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도구의 모양이나 장식에는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생활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또, 지배층의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으로 만든 의식용 도구에는 말이나 호랑이, 사슴, 사람 손 모양 등을 사실적으로 조각하거나 기하학무늬를 정교하게 새겨 놓았다(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경북 영천 어은동).

이들은 주술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은(는) 현도의 북쪽 천여 리에 있는데, 남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국토의 면적은 사방 2천 리이고, 호수는 8만이다. …… 그 나라의 법률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을 몰수하며, 도둑질한 사람은 12배를 갚도록 하고,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하면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혹 전쟁이 있게 되면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발굽으로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합해지면 길하다고 생각하였다.

① 가(加)들이 저마다 사출도를 다스렸다.
② 목지국의 지배자를 진왕으로 추대하였다.
③ 고구려에 소금, 어물 등을 공물로 바쳤다.
④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⑤ 책화를 통해 부족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정답: ①

* 초기 국가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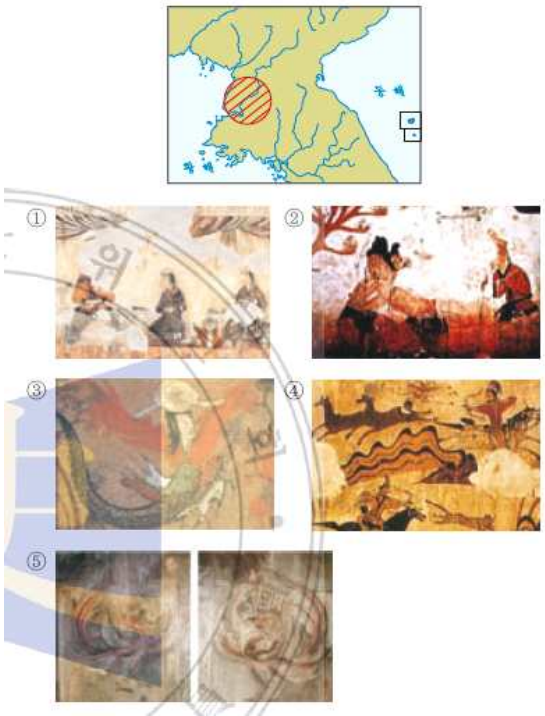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쑹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등이 유명하였다.

부여는 이미 1 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다가 3 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은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 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②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③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옥저는 고구려에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④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⑤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3. 지도에서 로 표시된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⑤

* 고구려 평양 주변의 고분 벽화

고구려 굴식돌방무덤에는 벽화가 있는데, 초기(국내성 시기: 중국 길림성 집안)에는 내세재생과 관련된 인물풍속도와 고구려인의 종료를 보여주는 일월성신과 불교도(연화문, 당초문)가 그려지다가 점차 후기(평양 시대)로 가면서 도교와 음양오행사상, 그리고 주몽신앙의 영향을 받아 신선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그림과 무덤에 묻힌 자를 지키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사신도가 주로 그려졌다.

① 고구려 귀족 생활 (중국 길림성 집안 각저총)
② 씨름도 (중국 길림성 집안 각저총)
③ 달의 신 (길림성 집안 오회분)
④ 수렵도 (길림성 집안 무용총)
⑤ 사신도 (평남 강서대묘)

4. 다음 유물이 발견된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영동 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뫼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① 널방을 벽돌로 쌓았다.
② 모줄임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③ 봉토 주위에 12지 신상을 둘렀다.
④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을 계승하였다.
⑤ 나무덧널 위에 냇돌을 쌓은 후 흙으로 덮었다.

정답: ①

* 백제 무령왕릉에 대하여

무령왕릉은 1971년에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의 다른 무덤과는 달리, 완전한 형태로 빛을 보게 되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 특유의 무늬를 새긴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려 주는 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덤이기도 하다.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관 장식, 귀고리, 팔찌 등 3000여 점의 껴묻거리가 출토되어 백제 미술의 귀족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② 발해에도 도읍지를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정혜 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줄임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다.
③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봉토 주위를 둘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④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꾸어 갔다
⑤ 신라 초기에는 주로 만든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묻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돌무지 덧널무덤)

5. 다음 초대장의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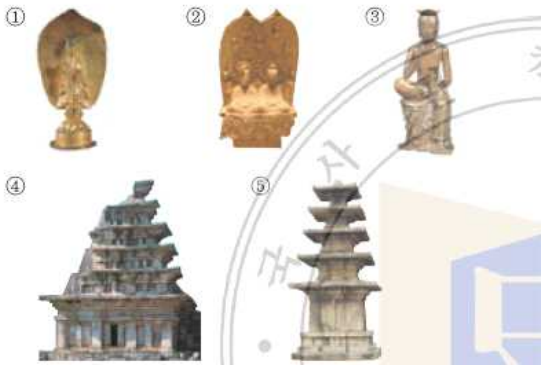
삼국 시대의 불교 문화유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삼국 시대 불교 문화유산 사진전을 기획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관람을 바랍니다.

1. 기 간 : 5월 10일~6월 30일
2. 장 소 : ○○ 박물관

☞ 자세한 내용은 전시회 홈페이지 www.samkuk_buddhism.com 을 참조하세요.

(가)



정답: ②

* 삼국의 불교 문화 유산

① 불교가 성행함에 따라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이나 백제의 서산 마애 삼존불, 신라의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은 미소를 머금은듯한 당시 불상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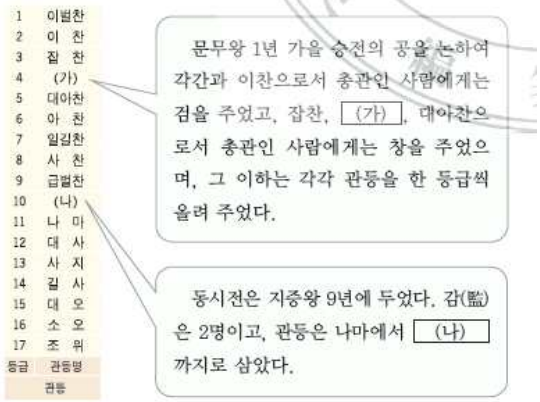
② 발해에서도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 많은 불상이 제작되었다. 상경과 동경의 절터에서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상도 발굴되었다. 이 불상은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이불병좌상).

③ 삼국 시대에는 미륵보살 반가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도 탑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과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 널리 알려져 있다.

④ 삼국 시대에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여 예배의 주대상으로 삼던 탑도 많이 건립되었다. 고구려는 주로 목탑을 건립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⑤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한 부여 정림사지 5 층 석탑이 부여에 남아 있다. 신라의 탑으로는 황룡사 9 층탑과 분황사탑이 유명하다.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 층까지만 남아 있다.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 관등의 관리는 청색의 관복을 입었다.
② (가) 관등은 집사부의 중시직에 오를 수 있었다.
③ (나) 관등은 6두품의 승진 상한선이었다.
④ (나) 관등은 5소경의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⑤ (가), (나) 관등은 중위제의 대상이 되었다.

정답: ②

* 신라 골품제에 대하여

(가) 파진찬, (나) 대나마

•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 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 골품제 관직 상한선과 복색

진골: 모든 관직과 자색(1~5등급) 복색 가능
6두품: 6등급 아찬이 관직 상한, 비색(6~9등급)이 복색 상한
5두품: 10등급 대나마가 관직 상한, 청색(10~11등급)이 복색 상한
4두품: 12등급 대사가 관직 상한, 황색(12~17등급)이 복색 상한

① 파진찬(4등급)은 자색 복색
② 집사부 시중은 규정상 17관등 중 제5등 대아찬부터 제2등 이찬까지 중시에 취임할 수 있었는데, 대개 파진찬이 임명되었으며, 진골 출신의 아찬이 임명된 경우도 있다.
③ 6두품의 관등 상한선은 6등급 아찬까지다.
④ 5소경의 지방 장관인 사신(사대등)으로 취임할 수 있는 관등범위는 4등인 파진찬에서 9등인 급(벌)찬까지이다.
⑤ 통일 직후 진골 중심의 골품제를 유지하면서도 비진골 중심의 관료제를 활성화시키는 타협안으로서 중위제가 성립되어 아찬에 4등급, 대나마에 9등급, 나마에 7등급의 중위를 설치하여 관등상의 상한선에 오른 비진골 관료층에게 특진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4등급인 파진찬은 진골만이 가능하므로 중위제 대상이 아니다.

7.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 화엄 사상을 쉽게 풀이하여 '무애가' 를 짓고 이를 중생의 교화에 활용하였다.
- 특정한 교설이나 학설을 고집하지 않고 화해와 회통을 강조하였으며 '일심(一心) 사상' 을 제시하였다.

① 정혜쌍수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②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③ 인도와 주변 국가를 순례한 후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④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⑤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설명하였다.

정답: ②

* 원효에 대하여

통일 시기를 대표하는 원효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 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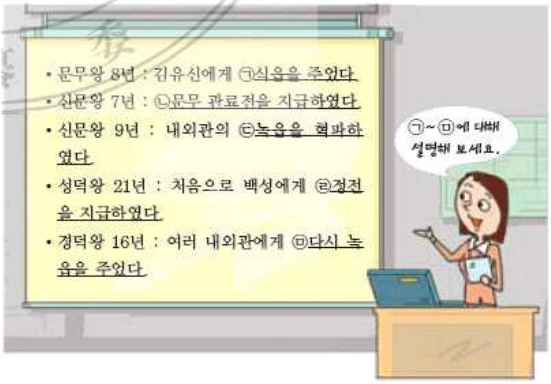
① 고려 후기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③ 통일신라기에 많은 승려가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해 왔다.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 그 중에 혜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④ 고려 중기 의천은 교선 통합을 위하여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⑤ 원효와 비슷한 시기의 의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화엄일승법계도 저술).

8.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갑 : ㉠은 조세 징수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준 것이에요.
② 을 : ㉡을 통해 국왕의 권한 강화를 뒷받침하였어요.
③ 병 : ㉢은 귀족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④ 정 : ㉣의 목적은 왕권 강화와 농민 경제 안정이었어요.
⑤ 무 : ㉤에서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정답: ③

* 고대의 토지

식읍(食邑):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관료전: 귀족 관료에게 준 토지로 녹읍, 식읍과는 달리 토지로부터 조세만 수취하고 사람들은 지배할 권한이 없었으며 관리는 관직에서 물러나면 관료전을 반납해야 했다.
따라서 이는 국왕권의 강화를 보여준다.

녹읍 혁파: 녹읍은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식읍처럼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녹읍의 폐지는 귀족권의 약화를 보여준다

정전 지급: 신라는 토지 제도를 바꾸어 식읍을 제한하고 녹읍도 폐지하였으며,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성덕왕). 아울러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구휼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조치는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녹읍 부활: 전제 왕권은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경덕왕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녹읍이 부활되었고, 사원의 면세전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도 압박을 받았다.

9.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전체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 제3조 개국 504년 8월 16일 관보 중 관청 사항란에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하고, 개국 505년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 밑에 '울도군' 3자를 추가할 일.
> 제4조 경비는 5등 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吏額)이 미비하고 여러 것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섬의 세금으로 우선 마련할 일.
> 제5조 미진한 여러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차 마련할 일.
> – ○○○○년 10월 25일 –

① 관보에 게재되어 국내외에 공포되었다.
②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명기하였다.
③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법상 근거가 된다.
④ 제정된 날을 기념하여 울릉군 조례로 '독도의 날'이 지정되었다.
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조치를 반박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정답: ⑤

* 울릉도, 독도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10.25)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이날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울릉군 조례로 독도의 날로 지정되었다

⑤ <u>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1905)</u>. 이는 국제법상 맹백한 불법 영토 침탈 행위인 동시에 일제에 의한 한국 영토 강점의 서막이었다.

10. 밑줄 그은 '북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 원성왕 6년 3월 사신을 북국(北國)에 보내 빙문(聘問)하였다. …… 요동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의 북쪽 땅을 병합하고 신라와 더불어 경계를 서로 맞대었지만, 교빙한 일이 역사에는 전하는 것이 없었다. 이때에 와서 일길찬 백어를 보내어 교빙하였다. -「동사강목」-
> • 헌덕왕 4년 가을 9월 급찬 숭정을 북국(北國)에 사신으로 보냈다. -「삼국사기」-

〈보기〉

ㄱ.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ㄴ. 밭농사가 중심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ㄷ.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을 수출하였다.
ㄹ. 금입택이 유행하자 금 사용을 억제하는 교서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발해의 경제 생활

발해는 9 세기에 이르러 사회가 안정되면서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달하였다. 농업에서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특히, 목축이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다. 수렵도 활발해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수공업은 철, 구리, 금은 등 금속 가공업과 삼베, 명주, 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하였다. 그리고 수도인 상경 용천부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 금입택(金入宅:부유층의 대저택)이 신라 전성기 때에 수도인 경주에 17만 8936호, 1,360방, 55리에 39개의 금입택이 있다고 하여 한 때 금(金) 사용 억제 교서가 있을 정도였다.

11. (가)~(다)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나) (다)





① (가)는 통일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였다.
② (나)는 원나라 조형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③ (다)는 경전 이해를 위해 불경 맨 앞장에 그려졌다.
④ (가), (나)는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제작되었다.
⑤ (가), (다)는 권문세족 집권기에 만들어졌다.

정답: ⑤

* 고려 시대 불교 문화 유산

(가)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후기의 경천사 10 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

(나)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기단과 탑신, 옥개석이 8각형으로 된 8각원당형(八角圓堂形)은 신라 말과 고려 초에 성행했던 전형적인 부도 형식으로 우리나라 부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1085)은 기단이나 탑신이 방형인 새로운 양식을 보이고 있다. 나타나기도 한다.

(다) **혜허의 양류관음도**(1300년 경)**:**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관음보살도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③ 경화(經畵: 불경에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그 경에 설하고 있는 내용을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양류관음도는 탱화(비단 또는 베 바탕에 불보살님의 모습이나 경전 내용을 그려 벽 같은 곳에 걸도록 그린 그림) 계열이다

④ 삼국 시대에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여 예배의 주대상으로 삼던 탑도 많이 건립되었다(미륵사, 정림사 석탑, 황룡사, 분황사탑 등).

신라 말에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12. 밑줄 그은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기구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기구는 이번 폭우의 이재민에게 28일 아침부터 급식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의 관계자는 "중앙 구호 대책팀과 9개 지방 긴급 구호팀이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수해 이재민을 돕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일보 2011년 7월 28일 –

〈보 기〉

ㄱ. 제위보 ㄴ. 구제도감
ㄷ. 교장도감 ㄹ. 삼정이정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재해민.빈민 구제 기관

고려시대에는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혜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하게 하였다.

각종 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③ 고려 전기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 의천은 고려는 물론이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④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자, 1862년(철종) 삼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관청이다.

13. 밑줄 그은 ㉠~㉤과 관련한 동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농부인 동이는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긴 후 지주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 가족들과 함께 인근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민전을 갖게 되었다.
>
> 동이는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였고, 호미로 김을 매었으며 퇴비를 만들어 논밭에 뿌렸다. ㉣이러한 농업 기술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농법으로서 ㉤경작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① ㉠ –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받았다.
② ㉡ –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납부하였다.
③ ㉢ – 지력을 빨리 회복시켜 수확량을 증가시켰다.
④ ㉣ – 「농사직설」을 통해 익혔다.
⑤ ㉤ – 밭에서 2년 3작의 윤작을 하였다.

정답: ④

* 고려 말의 농민 경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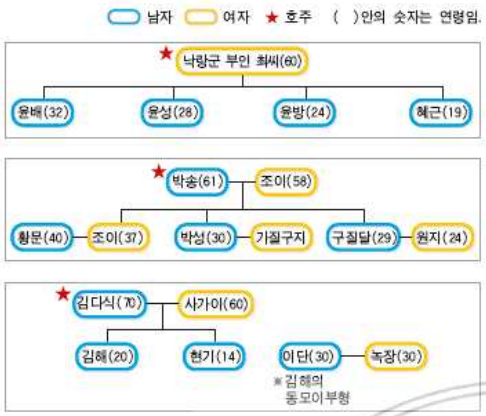
고려의 농민은 조상이 물려준 토지인 민전(생산량의 1/10 조세 납부)을 경작하거나, 국·공유지나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경작하였다. 또, 품팔이를 하거나 부녀자들이 삼베, 모시, 비단등을 짜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대개 농민은 소득을 늘리려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웠다.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경작하던 주인이 방치해서 황폐해진 토지인 진전을 개간할 때, 주인이 있으면 소작료를 감면해 주고, 주인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 주었다.

호미와 보습 등 농기구와 종자도 개량되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밭농사는 2년 3작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논농사도 고려 말에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

④ 조선 초기에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농서를 간행, 보급하였다. 특히, 농사직설(1429)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14. 도표는 어느 시기 호적들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사회 모습에 대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 : 여성의 재가가 가능하였어.
② 을 : 부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어.
③ 병 : 자녀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였어.
④ 정 :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
⑤ 무 :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였어.

정답: ④

* 고려의 가족, 상속 제도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④ 조선 후기에는 부계.적장자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다

15. 밑줄 그은 '중성'이 건립되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별무반의 편성 과정을 이해한다.
② 대화궁을 설립한 이유를 파악한다.
③ 정동행성이 설치된 목적을 연구한다.
④ 시헌력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
⑤ 재조대장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조사한다.

정답: ⑤

* 고려 몽골의 침입과 강화 천도기의 모습 (1232~1270)

몽골의 1차 침입(1231) 이후 최씨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1232),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1232~1270)

①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 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②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다(1135).

③ 원의 간섭기(1270~1351)에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1280)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다.

④ 조선 후기의 역법으로 김육 등의 노력으로 시헌력이 도입되었다. 이는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청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종전의 역법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약 60여 년 간의 노력 끝에 시헌력을 채용하였다.

⑤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고종 때에는 강화도에서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재조대장경: 1236~1251)

16. 밑줄 그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의 이력

목종 8년	과거에 장원 급제함.
현종 4년	국사수찬관으로 ㉠「칠대실록」 편찬에 참여함.
정종 1년	㉡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함.
문종 1년	㉢문하시중이 되어 형법의 기틀을 마련함.
문종 4년	㉣도병마사의 판사를 겸하고 동여진에 대한 대비책을 건의함.
문종 9년	퇴직 후 ㉤9재 학당을 설립함.

① ㉠ - 외적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인쇄본 일부가 남아 있다.
② ㉡ - 급제자와 함께 좌주-문생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③ ㉢ - 중서문하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④ ㉣ -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⑤ ㉤ - 9경(經)과 3사(史)를 가르쳤다.

정답: ①

* 고려 관제와 역사서, 교육기관

• **칠대 실록**: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렸다. 이에,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을 현종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덕종 때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려 왕조의 실록은 오늘날 전하지 않고 있다.

• **지공거**: 고려시대의 과거 시험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지공거에 대하여 은문(恩門) 또는 좌주라 하여 문생의 예를 지켰다

• **문하시중:** 고려는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 **도병마사**: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 **9재 학당**: 고려 문종 때 최충이 세운 9재 학당(문헌공도)은 9경(經)·3사(史)를 중심으로 하고 겸하여 시부(詩賦)·사장(詞章)도 공부시켰다. 사학(私學) 12도 중에서 가장 번성하여 명성이 높았다.

17. (가), (나) 사건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간사한 신하 김종직은 나쁜 마음을 몰래 품고 그 무리들을 모아 흉악한 계획을 시행하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는 항우가 의제를 죽인 일을 기록하여 세조를 나무라고 헐뜯었다. 이는 하늘에 닿을 만큼 악독한 죄이니 용서할 수 없다. -「연려실기술」-

(나)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 소윤설이 있었는데 일을 좋아하는 군소배들이 부회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 임백령, 정순붕, 최보한의 무리들은 윤원형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보 기〉

ㄱ. 유향소 복립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였다.
ㄴ. 현량과를 통해 사림이 대거 중용되었다.
ㄷ.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서인에 가담하였다.
ㄹ. 조정의 관리들에게 신언패(愼言牌)를 차게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무오사화(1498: 연산군)와 을사사화(1545: 명종) 사이의 역사적 사실

㉠ 유향소 복립: 중앙집권을 강조한 태종과 세조 때에 유향소가 폐지되었다가 각각 세종(1428)과 성종 때(1488)에 복립되었다.

㉡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 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 선조 때에 서경덕 학파와 이황 학파, 조식 학파가 동인을 형성하였으며,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가 서인을 형성하였다.

㉣ 신언패: 조선 시대 연산군 때(1504)에 관리들에게 말을 삼가도록 하기 위해 차게 한 패(牌)로서 언론 탄압을 보여준다.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 주세붕이 이 고을을 다스릴 적에 특별히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우선을 삼아 …… 그 지형을 관찰하여 [(가)]을(를) 지었는데, 집이 모두 30여 칸이었습니다.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성공을 모시고, 문정공 안축과 문경공 안보 두 분을 함께 배향하였으며, 곁에다 서당과 정자를 지어 학생들이 거처하며 강학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 • 이제부터 우리 고을의 선비들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근본으로 하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 …… 진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득이 [(나)]을(를) 만든 까닭이다.
>
> 「퇴계집」

〈 보 기 〉

ㄱ. (가) – 향촌 사림을 결집,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ㄴ. (가) – 사원의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을 결합하여 지었다.
ㄷ. (나) – 인재를 양성하면서 봄, 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냈다.
ㄹ. (나) – 지방 유력자가 농민을 수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 (가)서원과 (나)향약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16 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서원도 향약과 함께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서원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서원 건축은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주위의 자연과 빼어난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경주의 옥산 서원과 안동의 도산 서원이 있다.

㉢ 향음주례는 매년 음력 10월에 고을의 관사(官司: 관청)가 주인이 되어 길일을 택하여 연고(年高)하고 유덕(有德)하며 재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주빈(主賓), 그 밖의 유생을 빈(賓)으로 하여 서로 모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을 함께 하고 계(戒)를 고한 예절이다.

19. (가)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의 약력**
> -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7년간 정희 대비가 수렴청정을 함.
> - 계비 윤씨가 투기하고 불손하므로 폐서인한 후 사사(賜死)함.
> - 이극증·어세겸에게 「대전속록」을 완성하게 함.
> - 풍속 교화를 위해 재가녀 자손의 관리 등용을 제한하는 법을 공포함.
> - 용산 두모포에 독서당을 설치하여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제술에 전념하도록 함.

① 진관 체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② 사병을 없애고 친위 군사를 늘렸다.
③ 규장각을 정책 연구 기관으로 육성하였다.
④ 편년체 역사서인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⑤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정답: ④

* 조선 성종의 업적

성종(1468~1494): 문물제도의 완성, 사림 등용 시작(김종직 등)

관수관급제 실시(1470)
홍문관 기능 강화(옛 집현전의 기능 부여)
국조오례의 완성(1487, 세종 때 편찬 시작)
서거정 등 <동국여지승람> 편찬(1481)
서거정 등 <동국통감> 완성(1485)
경국대전 완성, 반포(1484, 1485)
도첩제 폐지(1492)
금양잡록(1492, 강희맹)
성현 등 <악학궤범> 완성(1493)

① 세조 때 진관체제 정비(1457)
② 태종 때 사병 혁파(1400)
③ 정조 때 규장각 설치(1776)
⑤ 광해군 때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1608)

20. 다음은 어느 그림의 제화시(題畵詩)이다. 이 그림으로 옳은 것은? [3점]

만이천봉 개골산, 누가 참모습 그릴 건가?
뭇 향기 동해 밖에 떠오르고,
쌓인 기운 세계에 서려 있네.
몇 송이 연꽃 해맑은 자태 드러내고,
솔과 잣나무 숲에 절간일랑 가려 있네.
비록 걸어서 이제 꼭 찾아간다 해도,
그려서 벽에 걸어 놓고 실컷 보느니만 못하겠네.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③

* 조선 후기 정선의 진경산수화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은 우리의 고유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으로 나타났다. 진경 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 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① 박연 폭포 (정선)
② 태종대(강세황)
③ 금강전도(정선)
④ 인왕제색도(정선)
⑤ 몽유도원도(안견)

21.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 이 역적은 간활한 향리·장교와 결탁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영(營) 아래의 보잘것없는 아전부터 강도나 유민으로 협종(脅從)된 자들까지 심지어 평서 원수(平西元帥)라 일컬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 • 그 졸개로는 의주로부터 개성에 이르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부호, 대상들이 이에 망라되어 있었고, 황해·평안 양도의 파락(破落)들이 모두 부하가 되어 돌아다니고 유민이 또한 많이 투속하였다. -「진중일기」-

①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② 사림이 훈구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③ 남인과 서인이 예송 논쟁을 벌였다.
④ 왕이 직접 나서서 환국을 주도하였다.
⑤ 소수의 유력 가문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정답: ⑤

* 홍경래의 난(1811)과 세도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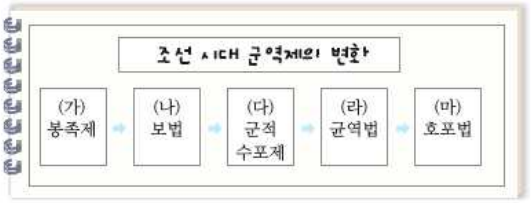
19세기의 세도 정치(유력한 소수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에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탐관오리의 부정과 탐학은 끝이 없었다. 삼정의 문란으로 극도에 달한 수령의 부정은 중앙권력과도 연계되어 있어 암행어사의 파견만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농촌 사회가 피폐하여 가는 가운데 농민의 사회 의식은 오히려 더욱 강해져 갔다.

농민은 지배층의 압제에 대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결하였다. 처음에는 벽서, 괘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던 농민의 항거는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농민의 항거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1811)과 단성에서 시작되고 곧이어 진주로 파급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농민 항쟁이었다(임술 농민 봉기, 1862).

홍경래의 난은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 개월만에 평정되었다.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사회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아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관리들의 부정과 탐학은 시정되지 않았다.

① 시파와 벽파의 대립은 임오화변(사도세자의 죽음, 1762) 이후이다.
② 사림이 훈구의 공격을 받는 사화는 16세기 전반기이다.
③ 남인과 서인의 예송 논쟁은 17세기 후반 현종 때이다.
④ 왕이 직접 환국을 주도하던 시기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인 숙종 때이다

22. (가)~(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 – 양인 장정은 정군이나 봉족이 되었다.
② (나) – 정군의 수가 줄어들어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③ (다) – 불법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시행되었다.
④ (라) – 지주가 군포 부담의 일부를 떠안게 되었다.
⑤ (마) – 군포 부담이 양반층까지 확대되었다.

정답: ②

* 조선 시대 군역제의 변화

• **봉족제**: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역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 조직을 강화하였다. 태종 이후 사병을 모두 폐지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였다. 이로써 모든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으로 편성되었다. (1404년 양정(良丁) 3명으로써 1호(戶)를 편성하고, 각 군인에 대해 최고 2호(6丁)까지 딸리게 함)

• **보법**: 1464년 세조 때에 봉족제를 전면 개편하여 호 단위 대신 인정(人丁)을 기준으로 보법(保法)을 제정하여, 군사 활동자는 정군이라 일컫고 그에 딸린 경제적 보조자는 보인이라 하였다. 양인(良人) 2정을 1보(保)로 하여 지급하였는가 하면 경제적 보조의 형태는 면포(綿布)로 하였다

• **군적수포제**: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가다, 마침내 1541년(중종) 군적수포제의 실시로 양인 장정들의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었다.

• **균역법**: 군역의 폐단을 시정키 위해 영조 때에 균역법이 시행되어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1750). 또한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 **호포법**: 호(戶)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던 세제로서, 흥선대원군 대 실시되었다. 양반은 노비의 이름으로, 서민은 군역(軍役)을 대신으로 포를 바치게 하였으며, 그 후 포를 전(錢)으로 대치, 매호 2냥(兩)으로 하여 양반도 군포를 부담케 하였다.

② 보법은 호(戶) 단위 대신 인정(人丁)을 기준으로 보인(保人) 수를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복무를 하는 정군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23.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조선 시대에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기구의 관리가 작성하여 한 달 분씩 정리해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 보 기 〉

ㄱ.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ㄴ. 국정의 중요 사항이 기록되었다.
ㄷ. 임진왜란 이전 기록은 소실되었다.
ㄹ. 세가, 지, 열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

조선 개국 초부터 일기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어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270여 년간의 일기만이 현존한다.

조선시대의 최고 기밀기록이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더불어 국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며,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역사 서술 방식은 기전체이며,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이에 해당된다.

24. (가), (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가) – 호란 이후 북벌 운동을 주도하였다.
② (가) –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에 참여하였다.
③ (나) – 주로 조식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④ (나) – 기사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⑤ (가), (나) – 인물성동론과 인물성이론으로 대립하였다.

정답: ④

* (가) 북인과 (나) 남인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후,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1589,기축옥사)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이황 계승)과 급진파인 북인(조식 계승)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① 친명배금을 주창한 서인이 호란 이후 북벌을 주도하였다.

④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를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재집권하고, 서인의 태두인 송시열 등을 사사하였다.

⑤ 18세기 이이 학파를 계승한 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호락 논쟁을 벌였다.

25. 다음 원칙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할 것.
> •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 •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 •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좌우 합작 운동과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1946.10)

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1)가 무기한 중단되자 좌우 세력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정읍 발언: 1946.6) 지지 세력을 모아갔다. 김규식과 여운형 등은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기 위해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1946.10).

미 군정은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미 군정은 통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준비를 하는 기구인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발족시켰다. 이후 제 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 5.~10.)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결국 결렬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유엔 총회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이 총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고, 통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에서 점령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1948년 1월 남한에 들어와 임무를 수행해나갔다. 그러나 소련은 총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면 남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북한이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활동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치러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엔 소총회는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6. (가), (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가) 중국과 서양은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는 …… 중국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 (나)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여섯 가지 좀 때문인데, 장사꾼은 그 가운데 들어 있지 않다. 첫째가 노비 제도이고, 둘째가 과거 제도이고, 셋째가 문벌 제도이고, 넷째가 사치와 미신 숭배이며, 다섯째가 승려이고, 여섯째가 게으름이다.

① (가) –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날 것을 역설하였다.
② (가) –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나) – 신후담, 안정복 등을 제자로 길러 학파를 형성하였다.
④ (나) – 영업전의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토지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⑤ (가), (나) – 화폐 유통에 비판적이어서 폐전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⑤

* 실학자 (가)홍대용과 (나)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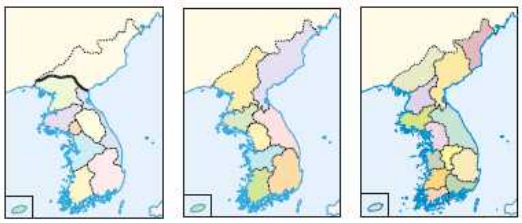
• **홍대용**: 북학파(청의 문물 수용 주장)의 실학 사상은 18 세기 후반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홍대용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기술의 혁신과 문벌 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 **이익**: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다(성호 학파: 안정복, 권철신, 신후담 등).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⑤ 화폐 사용을 주장하는 중상학자인 홍대용과는 달리, 이익은 동전의 유통은 관리와 고리 대금업자, 도적들에게 편리할지 모르지만 농민에게는 소비 성향을 높이고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시킨다며 물품 화폐로의 복귀를 강력히 주장했다(폐전론)

27. 지도는 역대 지방 행정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가) (나) (다)



〈 보 기 〉

ㄱ. (가) – 외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ㄴ. (나) – 수령이 관할 지역의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하였다.
ㄷ. (다) – 부·목·군·현 등의 지방 행정 구역을 군으로 단일화하였다.
ㄹ. (가), (나), (다)의 순서로 변화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역대 지방 행정 구역

(가) **고려 5도 양계**:
(나) **조선 8도**:
(다) **1896년 8월 개편 13도,** 또는 **해방 이후**(1946.8) **14도**(제주도 색깔을 도로 인정하는 경우)

㉠ 고려에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군·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 조선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 대한민국은 도 밑의 지방 행정 구역을 시.군.구 등으로 나누고, 도와 독립적인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등의 지역도 있다.

* 2차 갑오개혁(1894.12) 때 종전의 팔도(八道)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府), 331군(郡)으로 나누어 부에는 관찰사를 두어 속군(屬郡)까지 다스리게 하였다.

1896년 8월에는 13도로 나누었고 일제시대까지 이어지다, 해방 이후 미군정 법률에 의해 현행 14도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북 지역은 북한의 행정 체계를 헌법상 인정치 않고 있다.

28.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풍문으로 들으니 황해도의 흉악한 도적 임꺽정의 일당인 서림이란 자가 이름을 엄가이로 바꾸고 숭례문 밖에 와서 산다고 하므로 가만히 엿보다가 잡아서 범한 짓에 대하여 추문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난 9월 5일에 우리가 장수원에 모여서 활과 화살, 도끼 등을 가지고 밤을 틈타 성 안에 들어가 전옥서의 옥문을 부수고 우리 두목 임꺽정의 처를 꺼내 가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① 관청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② 방납의 폐단으로 유망하는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③ 상공업의 발달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④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과전법이 단행되었다.
⑤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공명첩과 납속책이 실시되었다.

정답: ②

* 임꺽정의 난과 16세기 수취 체제의 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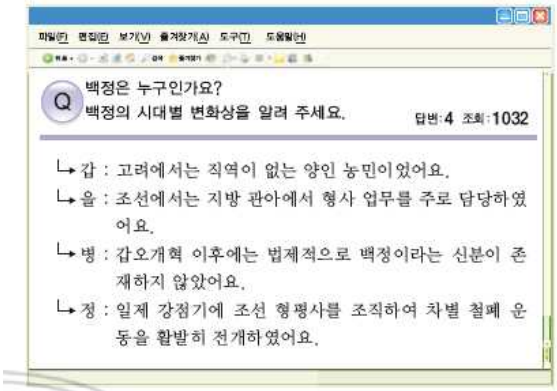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그 외에 군역의 폐단(요역의 군역화, 대립제, 방군수포제), 환곡의 고리대화 등의 폐단이 있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①,③,⑤는 조선 후기(17세기 이후)의 모습이다.
④ 과전법은 조선 초기(15세기)의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이다.

29. 다음 질문에 옳은 답글을 작성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2점]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정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정답: ④

* 역대 백정의 시대별 변화상

고려: 국가로부터 직역(職役)이 없어 토지를 분급(分給)받지 못하는 양인(良人) 농민층이었다

조선: 천인(賤人) 중 하나로, 호적(戶籍)에서 제외된 천민 계급으로 가축류의 도살을 주업으로 하는 한편 부업으로 고리를 제작하였다

갑오개혁: 법제적으로 모든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일제 시대: 백정은 갑오개혁을 계기로 제도상으로는 신분적 평등권을 얻었으나 오랫동안의 습관은 간단하게 버려지지 않아 여전히 차별을 받아 오던 중, 그들 자체의 자각이 싹터 1923년 5월에는 경상도 진주에 그들의 결사(結社)인 형평사(衡平社)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사회적인 신분 향상을 요구하는 한편 직업의 자유를 외쳤다.(형평 운동)

을: 나장(주로 중앙 사법 관서에서 형사 업무 담당. 지방 관아에서 형사 업무 담당으로 보기도 함. 지방 관아에서는 나졸이라고도 함)은 조선의 신량역천(身良役賤)중 하나이다.

칠반천역: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힘든 일에 종사한 일곱 가지 부류

30.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다큐멘터리 기획서

1. 제목 : 역사 속의 경쟁자
2. 기획 의도 : 경쟁자이면서 시대를 같이 했던 인물들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한다.
3. 방송 회차별 내용

회차	대상 인물	인물 선정 이유
1	근초고왕과 고국원왕	(가)
2	묘청과 김부식	(나)
3	정도전과 이방원	(다)
4	김상헌과 최명길	(라)
5	신채호와 안창호	(마)

① (가) – 황해도 지역을 두고 대립하였다.
② (나) – 서경 천도를 둘러싸고 대결하였다.
③ (다) – 국왕과 재상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④ (라) – 청에 대한 외교 노선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⑤ (마) – 대한인 국민회의 운영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였다.

정답: ⑤

* 역사 속의 경쟁자

•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마한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고국원왕)와 대결하였다.

•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 병자호란(1636)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최명길(崔鳴吉) 등 주화파(主和派)와 김상헌(金相憲) 등 주전파(主戰派) 사이에 논쟁이 거듭되다가, 강화론이 우세하여 마침내 성문을 열고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삼전도의 굴욕).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용만, 이승만, 안창호 등에 의해 창설된 대한인국민회(1910)는 후일 3인 사이의 경쟁.갈등이 심하였다.

⑤ 안창호와 신채호는 임정의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각각 개조파와 창조파로 갈등관계였다.

31. 다음 명령이 내려진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왕이 백성에게 임하여 귀천이 없고 내외가 없이 고루 균등하게 적자(赤子)로 여겨야 하는데, '노'라고 하고 '비'라고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 36,974구와 시노비 29,093구를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안을 거두어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게 하라. 그리고 그 경비에 쓰이는 노비의 공물은 장용영에 명하여 대급하게 하여 이를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① 입역 노비를 납공 노비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 노비 신공(身貢)의 감액 조치가 여러 차례 내려졌다.
③ 신분제의 동요로 역을 부담하는 양민의 수가 감소하였다.
④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공노비안이 유명무실해졌다.
⑤ 보충군(補充軍) 제도를 통한 노비들의 신분 상승 사례가 많아졌다.

정답: ⑤

* 공노비 해방(1801)

• 왕실(내수사 소속) 노비인 내노비, 각 관서에 소속된 시노비는 관노비이다.

• 조선 후기에 노비는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부단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 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공노비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자, 공노비를 종래의 입역 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전환시켰다.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도망 노비들은 임노동자나 머슴, 행상이 되거나, 화전을 일구며 살아갔다. 도망한 노비의 신공은 남아 있는 노비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노비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노비의 도망이 빈번해지자, 나라에서는 신공을 줄여 달래기도 하고, 이들을 찾아 내려고도 하였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18 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③ 신분제의 동요로 줄어든 역을 담당할 양민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⑤ **보충군**: 조선 시대에, 신량역천의 간척(干尺)이나 한품(限品) 자손 따위로 편성한 군대. 태종 15년(1415)에 설치하였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을 마치면 속신하여 양인이 되도록 하였다.

32. 다음 법령이 발표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제1조 본 법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제3조 임대인이 마름 등 소작지의 관리자를 둘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윤, 군수에게 신청한다.
> 제7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을 내려갈 수 없다. 단, 영년작물(永年作物)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7년을 내려갈 수 없다.
> 제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신 행위가 없는 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조선 농지령 –

① 식량 관리법이 제정되어 식량 공출이 확대되었다.
② 공업 원료 증산을 위해 남면북양 정책이 실시되었다.
③ 근대적 토지 소유제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④ 총독의 허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⑤ 호남선, 함경선 등이 건설되어 X자 형태의 간선 철도망이 구축되었다.

정답: ②

* 조선 농지령(1934) 발표 시기의 경제 상황(1930년대)

조선 농지령: 1920년대 이후 격화되는 소작쟁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기존의 소작령을 대폭 수정 ·보완한 법령.
명칭만 거창할 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만 국한시킨 그 적용범위로 볼 때는 이전의 조선소작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 ·군 ·도에 소작위원회를 두고 마름의 악폐를 제거하기 위해 지주가 마름과 같은 소작지 관리인을 둘 경우 지방관서에서 그 인물의 적부를 소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게 한 것, 소작권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작물의 성격에 따라 3년 내지 7년 이상의 기한을 규정한 것 등은 소작쟁의의 주요 원인을 근절시키려 했던 목적에 합당한 조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령의 실제 집행에서는 여전히 지주를 옹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으므로, 이 법령의 당초 제정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소작쟁의는 그 뒤로도 수없이 발생하였다.

① 식량관리법: 1943년, 미곡 공출을 맥.면. 마류로 확대한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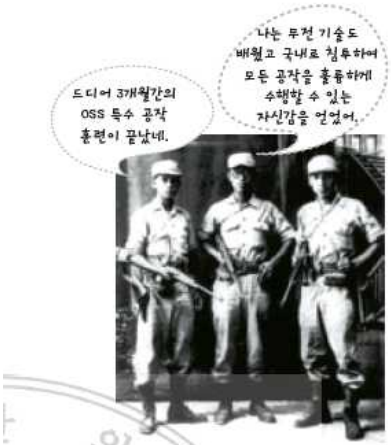
② 남면북양: 1932년부터 실시된 공업 원료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목화 재배를, 북쪽에서는 양 사육을 강요한 식민정책 (1930년대).

③ 토지조사사업: 식민 통치에 필요한 안정된 지세를 확보키 위한 조사 사업 (1912~1918)

④ 1920년에 일제는 기존의 회사령(허가제)를 폐지하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꿨다.

⑤ 호남선(1911), 함경선(1928) X자 간선 철도망 구축(1910년대~1920년대)

33. 사진 속 인물들이 소속된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말산부에서 조직되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②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③ 백운평, 어랑촌, 고동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④ 조선 독립 동맹의 군사 조직에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⑤ 조선 의용대의 일부 병력을 통합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다.

정답: ⑤

* 한국 광복군

1937년에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위협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후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고,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 병력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여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었고, 또,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① 서일을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
②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한 한국독립군
③ 청산리 대첩: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되었다.
④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의 모태가 되었다(1942).

34. 다음 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1898년에 창간된 신문으로 초대 사장은 이종일이었다. 국민 계몽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국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발행한 한성신보와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 보 기 〉

ㄱ. 신문지법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ㄴ. 박문국에서 간행하여 관보적 성격을 띠었다.
ㄷ. 국채 보상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ㄹ. 국권 강탈 후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제국신문

이종일이 한글로 간행한 "제국신문"(1898~1910)은 서민층과 부녀자들 간에 독자가 많았다. 이 신문은 폐간될 때까지 일제의 탄압으로 여러 차례 정간을 당하면서도 민중 계몽과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 신문지법(1907)에 규정된 내무대신에게 부여된 행정처분권과 보증금제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던 〈황성신문〉·〈제국신문〉이 보증금 문제로 폐간되었다.

㉡ 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박문국에서 간행한 한성 순보였다. 한성순보는 국내 소식과 함께 서양의 신문화를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관보적 성격), 갑신정변의 실패로 폐간되었다.

㉢ 국채보상운동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 제국신문, 만세보 등 각종 신문이 후원하여 신문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적극 지원하였다.

㉣ 가장 치열한 항일 언론인 대한매일신보는 국권 피탈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했다.

35. 다음은 어느 외교관이 한 말이다. 밑줄 그은 '이 계획'이 실행된 직후의 정세로 옳은 것은? [3점]

> 서울에 도착한 후 나는 조선의 사태를 보고 정말 놀랐다. 나는 대신들을 권력으로부터 몰아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종이 비밀리에 궁궐을 떠나 우리 공사관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 계획을 직접 고종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는 이 일의 감행을 주저하였다. 그가 결심을 굳히기까지 나는 수차에 걸쳐 고종이 암담한 처지에 있으며 더 이상 궁궐에 머물러 있으면 매일 암살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결국 그는 나의 주장에 응하여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페이에르 –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② 프랑스가 경의철도 부설권을 허가받았다.
③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개혁을 요구하였다.
④ 청이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가설권을 확보하였다.
⑤ 미국은 고종의 특사인 헐버트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였다.

정답: ②

* 아관파천(1896) 직후의 정세

일본의 침략과 급진적인 갑오·을미개혁의 실시로 대부분의 국민 사이에 반일 정서가 확산되었다. 또, 고종은 왕권을 제약하려는 개화 세력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을미사변 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아관 파천, 1896), 개화파 정부는 무너졌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 철회, 의병 해산 권고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아관 파천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철도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① 영국의 거문도 점령(1885~1887)
② 프랑스의 경의선 철도 부설권 획득(1896)
③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개혁 요구(1894.7)
④ 서울~인천과 서울~의주간 전신 가설(1885, 청)
⑤ 고종 특사 헐버트와 미국과의 면담 시도(1905, 을사조약 직후)

36. 다음 만평에서 풍자하는 정세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만주의 3부가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되었다.
② 신간회가 창립되어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③ 동지의 단결을 목표로 대동 보국회가 조직되었다.
④ 중국에서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되었다.
⑤ 조선 물산 장려회 등이 참여한 조선 민흥회가 출범하였다.

정답: ③

* 민족 연합전선(민족 유일당, 좌우합작)

중국의 제1차 국·공 합작은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적극 호소한 안창호 등의 노력으로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되었다(1926).

국내에서는 6·10 만세 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단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은 일제가 강력히 탄압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활동 공간의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에 일부사회주의자들은 정우회 선언을 통해 민족주의 진영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주장하였다.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이상재, 안재홍 등 비타협 노선을 걷는 독립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자치 운동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민족 운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가 연합한 조선 민흥회가 창립되었다(1926). 그리고 뒤이어 일제 강점기 국내의 대표적인 민족 협동 전선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고(1927), 각지에 지회를 설립하였다.

① 만주의 3부는 민족 유일당을 세우자는 기치 아래 활발한 통합 운동을 전개하여 1920년대 말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 의회의 두 세력으로 재편되었다.

③ **대동보국회**: 19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경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이 회는 교육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본래의 의도는 안창호의 공립협회에 대항하는데 있었다.

37. 다음은 근대에 추진된 개혁 내용이다. (가)~(라)를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점]

(가)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서울에 관립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나) 중앙 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나누고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여 의정부 직속으로 하였다.
(다) 의정부와 각 아문의 명칭이 내각과 부로 바뀌고,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이 농상공부로 통합되어 모두 7부로 개편되었다.
(라) 원수부를 설치하고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군사 수를 대폭 증가시켰으며 장교 양성을 위한 무관 학교를 세웠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가) – (라) – (다)
③ (나) – (다) – (가) – (라)
④ (다) – (가) – (라) – (나)
⑤ (다) – (라) – (가) – (나)

정답: ③

* 근대 개혁(을미개혁, 1.2차 갑오개혁, 광무개혁)

• **을미개혁**(1895):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실시, 친위대·진위대 설치,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소학교 설립, 우편 사무 실시

• **1차 갑오개혁**(1894.7): 군국기무처 주도.
정치: 궁내부와 의정부 분리, 국왕의 전제권 제한, 의정부에 권한 집중,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과거제 폐지, 경무청을 설치, 개국 연호 사용
경제: 국가 재정 일원화(탁지아문), 은 본위 화폐제, 조세의 금납화, 도량형 통일
사회: 신분제 폐지, 공사 노비제 혁파,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도 폐지

• **2차 갑오개혁**(1894.12): 홍범 14조 반포.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8아문->7부), 지방제도 개편(8도 -> 23부, 337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조서 반포(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 **광무개혁**(1897~1904)
대한국 국제 반포(1899), 양전사업 → 지계 발급, 황실 중심의 상공업 진흥책 추진(근대적 공장, 회사 설립, 각종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근대 시설 확충, 원수부 설치, 무관 학교 설립, 간도, 연해주 교민 보호 정책 → 간도 관리사 파견

38. 밑줄 그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1881년에 조사 시찰단의 일원이 되어 일본을 시찰하였다. 이후 개화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병조 참판으로 우정국 총판이 되어 정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청국 군대가 정변 진압을 위해 궁궐에 들어오자 끝까지 고종을 호위하다가 피살되었다.

〈보 기〉

ㄱ. 한성주보의 발간을 주도하였다.
ㄴ. 한반도의 중립화 방안을 구상하였다.
ㄷ.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ㄹ. 박규수의 문하에서 개화사상을 접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급진 개화파 홍영식(1855~1884)

개화당의 중진으로, 신설된 우정국의 총판이 되어 그 개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을 일으켜 사대당을 제거하고 신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신정부가 무너지자 대역죄로 처형되었다.

일찍이 김옥균, 박영효 등과 함께 박규수 문하생으로 개화 사상을 접하였고, 1881년 조사 시찰단원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이어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 한성주보는 1886년 김윤식이 중심이 되어 박문국에서 발간한 조선정부의 관보.

㉡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구상한 이는 독일 영사 부들러와 개화파 유길준이다.

39. 다음 답사 계획서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③

*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 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교조신원운동>: 1892~1893
삼례 -> 서울 -> 보은(정치 투쟁화)

<고부봉기>: 1894.1.10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 문제)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 파견

<1차 봉기>: 1894.4, 반봉건적,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재봉기(백산 봉기) → 황토현(정읍), 황룡촌(장성) 전투에서 관군 격퇴 → 전주성 점령(4.27)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5. 5) → 톈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5. 9)
• 전주 화약 체결(5.8): 동학 농민군은 외국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 → 일본의 궁성 침입(6.21)

< 집강소 시기 >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9, 남접+북접, 항일구국투쟁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 개혁 강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북접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북접 손병희 부대와 합류)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1월)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월)

40. 표는 어느 단체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회의	결의와 사업 방안
제1회 총회	• 의복은 두루마기와 치마로 입되 무명을 염색하여 음력 정월 1일부터 실행토록 함 • 음식은 설탕·식염·청량음료를 제외하고는 토산품을 사용
제2회 총회	• 회원에게 연연금(年捐金) 1원씩 수납하기로 결정
임시 총회	• 기관지로 「자활」 발행
제6회 총회	• 조선 농민 운동을 적극 후원할 것
제7회 총회	• 간이한 사업을 설계 발표하여 일반 소자본 경영자에게 참고하게 할 것 • 조선인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개선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

〈 보 기 〉

ㄱ. 근검 저축, 금주·단연 운동을 추진하였다.
ㄴ.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ㄷ. 한규설, 이상재, 윤치호 등 100여 인이 발기하였다.
ㄹ. 대한매일신보 등의 도움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물산장려운동(1920년대)

• 목표 : 민족 자본과 산업 육성 → 민족 경제의 자립 달성

• 시작 :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1920) → 전국으로 확산

* 이 운동은 1920년대 조만식의 물산장려회와 청년 학생 중심의 자작회가 중심되어 추진한 경제적 구국 운동이다

• 활동 : 토산품 애용, 근검 저축, 생활 개선, 금주·단연 운동 전개

• 결과 : 1920년대 초반에 활발히 전개 → 일본 기업에 비해 자본과 생산력 열세, 1920년대의 경제 불황, 일제의 간섭과 탄압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사회주의계의 비판 : 물산 장려 운동은 상인, 자본가 계급 일부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

㉢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한 조선교육회(1920)에 대한 설명이다.

㉣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한 국채보상기성회에 관한 설명이다(1907).

41. 다음 ㉠~㉤ 도안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 – 왕실 조상의 덕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② ㉡ – 용상 뒤에 놓여 왕권을 상징하였다.
③ ㉢ – 석실 대신 회격을 사용한 광릉에 묻혔다.
④ ㉣ – 자명종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혼천시계의 일부이다.
⑤ ㉤ –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다시 그려졌다.

정답: ③

* 1만원권 지폐(2006년 제작) 도안 소재에 대하여

㉠ **용비어천가**: 세종 때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왕실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지었다.

㉡ **일월오봉도**: 임금이 다스리는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병풍이다.

㉢ **세종대왕**: 능은 영릉(여주 소재)이다

㉣ **혼천시계:** 1669년 현종 10년에 관상감 교수 송이영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천문시계로 기존의 천체 관측기인 혼천의(세종 때 발명)에 자명종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천문도를 만들었다.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세종 때에도 새로운 천문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③ 조선 세조의 능인 광릉(진접 소재)은 다른 왕릉에 비해 간소하게 조영되었다.
세조는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세조의 유언에 따라 이전까지 석실로 되어 있던 능을 회격(灰隔)으로 바꾸어 부역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였다

42.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신문 2011년 ○월 ○일

경교장 본모습 내년 **광복절에 본다**

광복 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첫 국무 회의가 열렸던 경교장(사적 465호)이 복원 공사에 들어가 내년 광복절에 온전히 복원된다.

경교장은 일제 시대에 큰돈을 번 ○○○이 자신의 친일 행적을 반성하는 뜻으로 이 인물에게 제공한 저택이다. 이후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되던 경교장은 이 인물의 서거 후 대사관·병원 등으로 쓰이다가, 2005년에 집무실이 기념실로 단장되었다.

① 항일 무력 단체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② 광복군 창설에 참여하여 광복군 사령관을 지냈다.
③ 국민 대표 회의 예비 회의의 임시 의장직을 맡았다.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되었다.
⑤ 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참가하였다.

정답: ①

* 경교장과 김구

경교장(京橋莊): 서울시 종로구 평동에 있는 백범 김구(金九)가 1945년 11월부터 1949년 6월 26(암살된 날)일까지 사용했던 개인 사저이다.

① 임시정부 국민대표 회의(1923)가 결렬된 이후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구는 가장 적은 희생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투쟁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1931).

② 임정 산하 창설된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은 한국독립군 사령관 출신 지청천

③ 국민대표회의(1923) 예비회의의 임시의장은 이시영과 함께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주역인 김동삼

④ 통합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대한국민의회의 주역인 이동휘

⑤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한 이는 후일 좌우합작운동의 중도 우파를 대표하는 김규식

43. 그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경자유전의 원칙 하에 시행되었다.
② 양전 사업을 통해 지계를 발급하였다.
③ 관개 시설 및 산림도 대상으로 삼았다.
④ 각 호당 소유지를 최대 5정보로 제한하였다.
⑤ 실시 후 한 달 만에 토지 몰수가 완료되었다.

정답: ①

* 해방 이후 농지개혁

경작 농민을 위한(경자유전의 원칙) 본격적인 농지 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었다. 농지 개혁법은 1949년 6월 공포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다가 보상액과 상환액을 같도록 개정한 후 1950년 3월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농지 개혁은 유상 매상과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를 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농지 개혁을 대비한 지주들이 토지를 임의 처분하고, 토지 대금으로 받은 지가 증권은 현금화가 어려워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가난한 농민은 분배받은 토지를 도로 파는 농지 개혁은 몇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여 신국가 건설 의지와 희망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이었다.

②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의 양전 사업
③ 대상 토지 조항: 법령 및 조약에 의해 몰수하거나 국유로 된 농지,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직접 땅을 경작하더라도 농가 1가구당 3정보(약 3만 m2)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가 사들인다. (농지만 해당)
④ 5정보 상한 소유 조항은 북한의 토지 개혁(1946)
⑤ 1950년부터 실시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고, 전후 재개되어 1957년에 일단락되었다.

44.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타임즈

– ○○○○년 8월 14일 –



오늘 미국 정부는 한국 경찰이 야당 본부를 습격하여 한 여성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정도를 넘어선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하였다. 미 국무성 대변인 토머스 레스턴은 해고에 항의하여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을 끌어내기까지의 사건 경위는 불확실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
②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었다.
③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④ 경부 고속 국도를 개통하여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였다.
⑤ 국제 통화 기금의 금융 지원을 받아 국가 부도를 면하였다.

정답: ①

* 1979년 유신 말기의 경제상황

제 2차 석유파동(1978~1980) 경제 침체 속에서 발생한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1979)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다. 이에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한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됨으로써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10·26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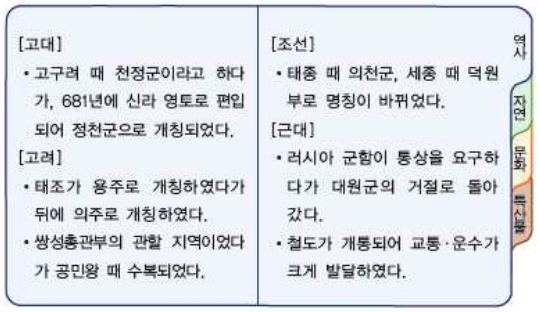
② 1980년대 중반(전두환 5공 정권)에 한국 경제는 안정되었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아 자동차, 가전 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한 고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③ 1950년대 경제는 미국의 원조 경제에 기반을 두고,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삼백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어 발달하였다.

④ 197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여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⑤ 1997년에 우리 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45. 다음 소책자에서 소개하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고려의 대표적 무역항으로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하였다.
②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입을 피해 국왕이 피난한 곳이었다.
③ 조선 후기에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④ 주민과 관리들이 뜻을 모아 근대적 사립 학교를 설립하였다.
⑤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선거 당일에 일어났다.

정답: ④

* 원산 지역의 역사

① 고려시대에는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개성의 외항)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② 임진왜란(1592) 발발하자 조선은 전쟁 초기에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없게 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③ 조선 후기 개시.후시 무역이 이루어진 곳은 대청 무역으로는 중강(의주), 경원 지역이고, 대일 무역으로는 왜관(동래) 지역이다

④ 1883년에는 원산에 사립 교육 기관인 원산 학사가 설립되어 최초로 근대 교육을 시작하였다.

⑤ 고교생이던 김주열 열사는 1960.3.15 정.부통령 부정선거 당시 마산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로 시신으로 떠올라 이후 4.19 시민혁명(경무대 앞 시위 때 경찰의 발포로 학생, 시민들 다수 사상)으로 승화되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몰락케 하는 단서가 되었다

46. (가) 국가가 소장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조선 국왕이 (가) 주교와 선교사, 그리고 조선인 신도 다수를 살해했다고 한다.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패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 전에 수차례 (가) 선교사에게 호조(護照: 여권)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귀 아문은 모두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이 비록 중국의 조공 국가이지만, 모든 국사를 자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 벨로네가 청 정부에 보낸 항의 서신 –

〈 보 기 〉

ㄱ. 어재연 수자기

ㄴ. 「직지심체요절」

ㄷ. 북관 대첩비

ㄹ. 「왕오천축국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프랑스가 소유한 우리 문화 유산

㉠ **어재연 수자기**: 신미양요 때 어재연 장군이 광성진에서 전사하며 장수기를 빼앗겨 미국에 보관되다, 2007년 최장 10년간(2년간 최대 5차례 연장 가능) 빌리는 조건의 합의 하에 반환되었다

㉡ **직지심체요절**: 1372년 경한(백운 화상)이 부처와 조사의 게송·법어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을, 경한의 입적 후인 1377년 청주 목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이 초간본이 된다. 상하 2권 중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권 1책(첫 장은 결락)뿐이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북관대첩비**: 임진왜란 정문부를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한 전공비로서 1905년 러.일 전쟁 때 함경지방에 진출한 일본군 제 2 예비사단 여단장 소장 이케다 마시스케는 주민들을 협박하여 비석을 파내 일본으로 옮겼다. '군국일본'의 상징인 도쿄 지요다 구의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었다가, 후손들의 반환 운동을 통해 반환운동을 벌인 끝에 2005년 10월 20일에 한국에 반환되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치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다가 2006년 3월 1일에 비석이 원래 있던 곳에 복원하기 위해 북한으로 전달되었다.

㉣ **왕오천축국전**: 신라의 승려 혜초가 고대 인도의 5천축국을 답사하고 쓴 여행기.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P.펠리오가 중국 북서 지방 간쑤성의 둔황 천불동 석불에서 발견하였으며 중국의 나옥진이 출판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7. (가) 지역 역사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이륭 양행의 활동 내용을 조사한다.
② 서전서숙이 설립된 지역을 알아본다.
③ 러시아가 용암포 조차를 요구한 목적을 파악한다.
④ 서희의 외교적 노력으로 확보한 영토를 찾아본다.
⑤ 후금 침입에 대항하여 정봉수가 일으킨 의병의 규모를 추정한다.

정답: ②

* 압록강 하류 지역(평북 의주, 중국 단둥 주변)의 역사

① **이륭양행:** 아일랜드 사람 조지 쇼가 1919년 5월 중국 단둥에 설립한 무역선박 회사로 비밀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서전서숙**: 1906년 이상설 등이 길림성 연길현 용정촌(북간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기관.

③ **용암포 사건**: 1903년(광무 7) 러시아가 한국의 용암포(압록강 하구의 항구)를 강제 점령하고 조차(租借)를 요구한 사건.

④ **강동 6주**: 거란의 1차 침입(993) 당시 서희의 외교적 노력으로 획득한 압록강~청천강 하류 지역에 설치한 흥화·용주·통주·철주·구주·곽주 등 6주.

⑤ 정묘호란(1627) 때에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 (평안북도 염주군과 피현군의 경계)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여 화의가 이루어졌다.

48. 다음 지도가 처음 제작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에서 밖으로 사해에 닿아 몇 천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요약하여 두어 자 되는 폭에다 그리니 자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를 만든 것이 대개 소략한데, …… 김사형 등이 여가에 지도를 참고하고 연구하여 검상 이회를 시켜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게 한 다음에 합하여 한 지도를 만들었다.

① 억울한 백성을 위해 신문고 제도를 두었다.
②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문묘를 설치하였다.
③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혔다.
④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⑤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정답: ①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편찬 시기(1402, 조선 초기: 태종)의 역사적 사실

<태종(1400~1418의 업적>

왕권 강화 정책(6조 직계제 실시: 1414)
사병 혁파(1400)
증광 문과 실시, 신문고 설치(1401)
호패법 실시, 무과 실시(140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 동양 最古 세계지도)
주자소 설치(계미자 주조. 1403)
한양 재천도(1405)
한양에 5부 학당 설치(->4부학당, 1411)
시전 설치(1411)
조선 8도 지방 행정 완성(도.군.현)
태조 실록 편찬(1413)
시장세와 상인세를 저화로 징수, 장인세 신설(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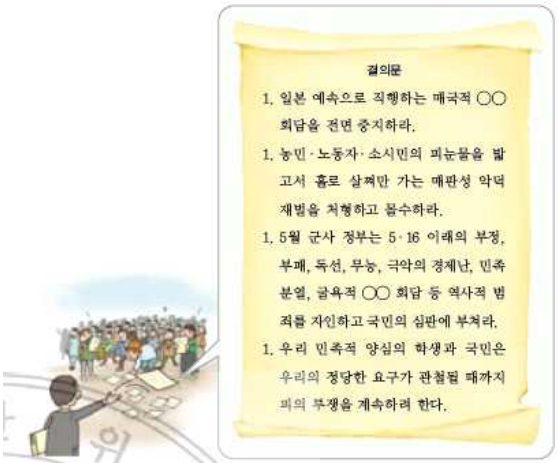
② 충렬왕 때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③ 조선 태조 때, 정도전은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④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1517)에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 기구로 설치되었다

⑤ 정조는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1781)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49. 다음은 어느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의 결의문이다. 이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이후 본격화되었다.
②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AID 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③ 일제 강점에 대한 사죄와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④ 한국 정부의 경제 개발 자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⑤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정답: ②

*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 미국의 수교 요구(한.미.일 대공산권 안보 동맹 확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 → 6·3 시위(1964, 굴욕외교 반대, 계엄령을 선포) → 한·일 협정 체결(1965)

• 6·3 항쟁(1964):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 사과, 약탈 문화재 반환, 군대 위안부,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 대한 배상,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이를 굴욕 외교라고 판단한 학생과 시민들은 치열한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①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간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한다는 소위 '김·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여, 청구권 문제의 해결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② **브라운 각서**: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당시의 주한 미국대사 W.G.브라운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

주요 내용은, ① 한국방위태세의 강화, ② 국군 전반의 실질적 장비현대화, ③ 보충병력의 확충, ④ 증파비 부담, ⑤ 북괴의 남파 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⑥ 대한군사원조 이관의 중지, ⑦ 차관 제공: 미국 국제개발처(AID) 차관, ⑧ 대월남 물자 및 용역의 한국조달, ⑨ 장병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이었다

50. (가)~(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가) 국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학에서 배운 학과에 대해 시험을 보는 제도이다. 시험 과목은 하품에서 특품으로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것에서 광범위한 지식으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나)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크게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술과와 명경과는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기에 중요시되었다. 잡과는 기술관 등용 시험이었다.

(다) 소과·대과·무과·잡과의 네 종류가 있었으며, 정기시와 부정기시의 구분이 있었다.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는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① (가) – 「곡례」, 「효경」 등을 기본적인 시험 과목으로 삼았다.
② (나) – 제술과가 명경과보다 중요시되었다.
③ (다) – 정기시는 3년에 한 번 시행되었다.
④ (나), (다) – 향리의 자제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⑤ (가), (나), (다)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정답: ④

* 역대 관리 채용 제도

(가) **독서삼품과**: 신라의 관리선발제도로 국학의 학생들을 독서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관리임용에 참고하였다 **하품**은 <곡례>, <효경>을 읽은 사람, **중품**은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사람, **상품**은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어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논어>, <효경>에도 밝은 사람을 등용했다. 특히, 오경(五經)·삼사(三史:사기·한서·후한서)·제자백가의 서적에 모두 능통한 사람은 **특품**으로 특용 채용되었다.

(나) **고려의 과거**: 고려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뉜다. 제술업은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업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잡업은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관 등용시험이었으나,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고려시대를 통하여 제술과의 합격자 수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 비해 명경과 합격자는 450명 정도인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다) **조선의 과거**: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문과는, 3 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증광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문과는 식년시의 경우에는 초시에서 각 도의 인구 비례로뽑고, 2 차 시험인 복시에서 33 명을 선발한 다음,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에서 순위를 결정하였다.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했으나, 후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④ 고려는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다.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지만, 향리는 법제상(경국대전)으로 문과 응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